

[미디어](#) 문의: Mashi Nyssen, (626) 302-2255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 폭풍우로 중단된 전력 안전하게 복구 하기위해 노력중

로스미드, 캘리포니아, 2013년 8월 19일 — 앞으로 몇 일동안 이곳 저곳에서 폭풍을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됨에 따라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기술자들은 폭풍우와 관련된 여러건의 [정전](#)지역에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고 [전력을 안전하게 복구](#)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SCE의 서비스 지역에서 350건 이상의 폭풍우와 연관된 지역이 발생했고 이들중 툴레어, 컨 그리고 샌버나디노 카운티와 레드랜드, 리지크레스트, 에로우헤드와 메니피 시에서 폭풍우와 관련한 수리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CE의 피해조사 담당자는 불안정한 날씨로 인한 천둥 번개로 인해서 전력관련 시설들과 장비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가 복구 될 때까지 특정지역의 고객들께서는 밤사이 단전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SCE는 이것으로 인한 고객들의 불편을 잘 알고 있으므로 수리작업을 하고 있는 기술자들은 전력 복구를 위해 밤샘작업을 통해서 내일까지 복구를 할 예정입니다. 유틸리티부서의 인원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지역으로부터 합세해서 복구작업을 도울 예정입니다.

이번 폭풍우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고객은 약 5천 5백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가장 광범위한 피해를 보고 있는 비법인 지역들로 1,200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툴레어 카운티이고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도 약 1,800명(특히 크레스트라인 부근지역)의 고객들이 영향을 받고 있고 컨 카운티에서도 약 1,300명(특히 레이크 이사벨라 부근지역)이 그리고 바스토우 시에서도 약 500명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샌 호아킨 지역을 강타한 폭풍우로 인해서 예정된 단전은 스케줄이 조정되었습니다. SCE는 예정된 작업들은 계속해서 지켜볼 것입니다.

폭풍우가 계속됨에 따라 SCE는 피해지역 뿐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에게도 [땅에 떨어져있는 전선](#)에 절대로 다가 가거나 만지지 말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떨어져있는 전선과 달아있는 그 어떤 것과도 접촉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전선들은 아직 전류가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러한 전선들로부터 멀리하시고 즉시 911에 전화하시거나 근처 소방소에 연락하십시오.

SCE는 그 밖에 다음과 같은 안전 수칙들에 대해서 주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장난 신호등이 있는 사거리에서는 주의 하십시오. 이런 사거리는 모든 방향에서 일단 멈추십시오.
- 야외에서 사용해야 할 요리기구나 그 밖의 발열기구를 실내에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기구들은 일산화탄소와 그 밖의 몸에 해로운 독성가스들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만약 발전기를 사용하신다면 실외에서 사용하시고 튼튼한 전선을 사용해서 전기기구 하나씩 따로 발전기에 직접 연결해서 사용하십시오. 발전기를 집안에 전력과 연결하면 수리 기술자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수 있는 역전류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에 대해

에디슨 인터내셔널(NYSE:EIX)의 자회사인 서던 캘리포니아 에디슨은 미 최대 전력회사 중 하나로 중가주와 캘리포니아 연안, 그리고 남가주 등 50,000 스퀘어 마일에 걸쳐 490 만 가정과 업체, 총 1,400 만명에게 전기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